



신난다, 맨손 고기잡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24일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리 앞바다에서 열린 '개매기 체험'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갯벌에서 맨손과 그물을 이용해 숨어

/장흥=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일대 5만4000㎡에 관광권선 41개동 건설 사업을 진행중인 ㈜DMK는 지난 2월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지난 2008년 11월 착공, 201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강화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공정을 30%에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 ㈜전원주택은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일대 부지 7만3232㎡에 콘도형 빌라 267실과 컨벤션센터 등을 짓는 '엔코 리조트' 사업을 2012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자금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업체는 모두 108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3월 기공식을 가졌지만 PF를 성사시키지 못해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빌리는 사람의 신용이나 담보 가치 대신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한 뒤 나중에 나오는 이익으로 돈을 갚는 방식이며 1920년대 미국의 유전개발 사업에 활용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전남 관광투자사업 'PF 지뢰'

정부 심사 강화에 숙박시설 건립 담보...차지사, 이대통령에 완화 건의

최근 금융감독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불똥이 전남지역 관광투자사업으로 튀고 있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순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숙박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에 나선 민간기업들이 금융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성사시키지 못해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 이후 호텔·리조트 등 건립을 위해 모두 24곳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현재 실현된 것은 단 2곳이 고작이다. ㈜한백알앤씨 등이 고흥에 지난 2009년 고흥 우주해안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했고, 파인포레스트가 지난 2008년 체결한 나주의 숙박·리조트단지 건설계획도 표류하고 있다.

전남도가 풍부한 자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중인 섬 관광자원화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간투자를 진행했던 17개 섬 가운데 관광객이 머물 고급 숙박시설이 건립된 지역은 중도 한 곳이 유일하다. ▲자은도(펜션·기업관 등 598억원) ▲도덕도(펜션 및 콘도 1071억원) ▲임자도(펜션, 에너지파크 등 441억원) ▲지도(해수온천·펜션·갯벌체험장 등 750억원) ▲남도(호텔·콘도 등 타임머신 아일랜드 조성 2053억원) ▲백야도(콘도·컨벤션센터·범선이벤트호텔 등 3500억원) ▲신지도(해안리조트 800억원) 등도 모두 투자협약만 체결한 뒤 여태껏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남도는 섬 개발 사업 전담팀을 꾸리고 사업계획 구상부터 인·허가 단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외 투자자 물색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전남도와 금융업계는 타지역에 비해 절대 우위의 해양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정부의 PF 감독 강화로 보고 있다. PF 대출 부실로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연체 부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 따라 지

난 6월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PF실태 및 감독 강화를 발표한 뒤 관광 분야에서도 투자문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PF 대출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관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숙박, 리조트 등 관광분야 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분야에 대한 PF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도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NH 보상 지연 '빛그린 산단' 조성 차질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

동시 승인 '대구 사이언스파크'는 예정대로...주민들 반발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원에 조성 중인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인 '빛그린 산단'의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LH는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원 408만 1000㎡ 부지에 광산읍과 디지털 정보타운, 자동차산단, 첨단부품소재, 생물·의약 등을 포함

하는 국가산단인 '빛그린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산단은 지난 2007년 12월 전남도와 광주시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지난해 9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돼 본격 추진됐다. 당초 오는 12월부터 보상이 들어가 2014년 1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가 자금난으로 주민 보상을 미루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LH는 지

난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무리한 통합에 따라 부채 109조원, 부채비율 524%로 하투 이자 비용만 84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2월 착수할 예정이었던 보상을 무기 연기하고 향후 보상 일정도 내놓지 않아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민중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은 25일 "LH에 빛그린산단 보상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LH가 재무상황의 어려움 가중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을 2011년 이후로 연기하게 됐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LH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도 지난 9일 산단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이 8억 원밖에 확보되지 않은데다 기채 발행·아파트 분양 등도 손조롭지 않아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오는 12월 보상이 미뤄졌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이 미뤄지면서 해당지역 이주 대상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함께 승인을 받은 국가산단단지인 '대구 사이언스파크'는 일정대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정수길 함평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공공개발 명목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놓고 보상마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대부분 지방장 조사가 끝나 주민들은 주택 증축·토지거래 등 모든 재산권이 묶이는 바람에 이라도 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 가구는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과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를 합해 모두 300여가구에 이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J프로젝트·F1경주장 땅 문제 해결됐다

양수·양도 마무리 개발사업 가속도

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상호지구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의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J프로젝트 사업지구 중 한 곳인 상호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레저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와 상호지구 간척지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지구의 경우 영암군 상호읍 일대 간척지 8.4km(255만평)에 2025년까지 골프장과 스포츠 리조트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남해안레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부지 대금의 상환 조건을 놓고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었다.

이번 협상에 따라 서남해안레저는 간척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거쳐 부지가격이 확정되면 향후 절차에 따라 계약금(10%)과 잔금을 납부하게 된다. 잔금 지급 방식은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서남해안레저는 당초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73억)을 내세워 난색을 표했던 '이행 보증보험증권'도 발급하기로 했다.

서남해안레저는 그동안 농어촌공사에 요구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대해 "F1 경주장 부지와 상호지구 등 J프로젝트 예정 지구에 대한 토지사용 문제가 일단락돼 대기업들이 J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자율형 시립고 지정
보통고 졸업생 인제 양성을 위한 준비된 자율형 시립고
보통고등학교

학교 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린타운 새강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망!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VENICE GLASS FANTASIA
글라스 핀타지아 지상전
▶피노 시뇨레토 '크란끼오'(20×30cm)
생생하고 기발한 유리 마법
세계 최고 유리 공예 장인 피노 시뇨레토(Pino Signoretto)의 정교함이 돋보이는 작품. 그는 가로·세로 2m가 넘는 대형 작품을 만드는 독보적인 기술을 지닌 작가인데, 이번 전시에는 사물을 원형 그대로 형상화한 소형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자신의 고향인 베니스 바다의 게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마치 살아 있는 게를 통째로 유리 안에 집어넣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하다.
'베니스 글라스 핀타지아'전은 오는 8월22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민주당
백성당과 국민당에 비해 더 나은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넓은 투쟁 입니까?
지역 발전 입니까?
장병완 40.1% > 오병윤 24.7% - KBS 조사
*2010. 7월 1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72명, 95%신뢰, 유효표의 87.7%에 의한 여론조사
민심도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가난한 남구, 33년 예산전문가 장병완이 필요합니다.
교육중심도시 남구 건설
- 광역시 광주시 교육청 및 민선시와 함께 교육도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택운관광 도심재개발
- 백운교가를 일거하고 주거환경지구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남구 맞춤형 복지실현
- 광동당 사정을 현대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2장 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2장 병완